

수도교회 어린이부 가정예배문(3/15)

1.기도

부모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봄이지만 우리가 이 봄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어린이: 하나님.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못 보고 지내요. 또 새로운 선생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새로운 교실도 궁금하지만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집에만 있는 것도 너무 심심합니다. 하나님. 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힘을 주세요.

다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이야기



요셉과 흉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요셉의 형 열 명은 음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지요.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은 가나안 집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혹시라도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보내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돕고 있던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있었어요.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하자 요셉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희는 가나안에서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에 관해 꿰던 꿈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참자군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음식을 구하러 왔을 뿐이에요.”

“아니,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게 분명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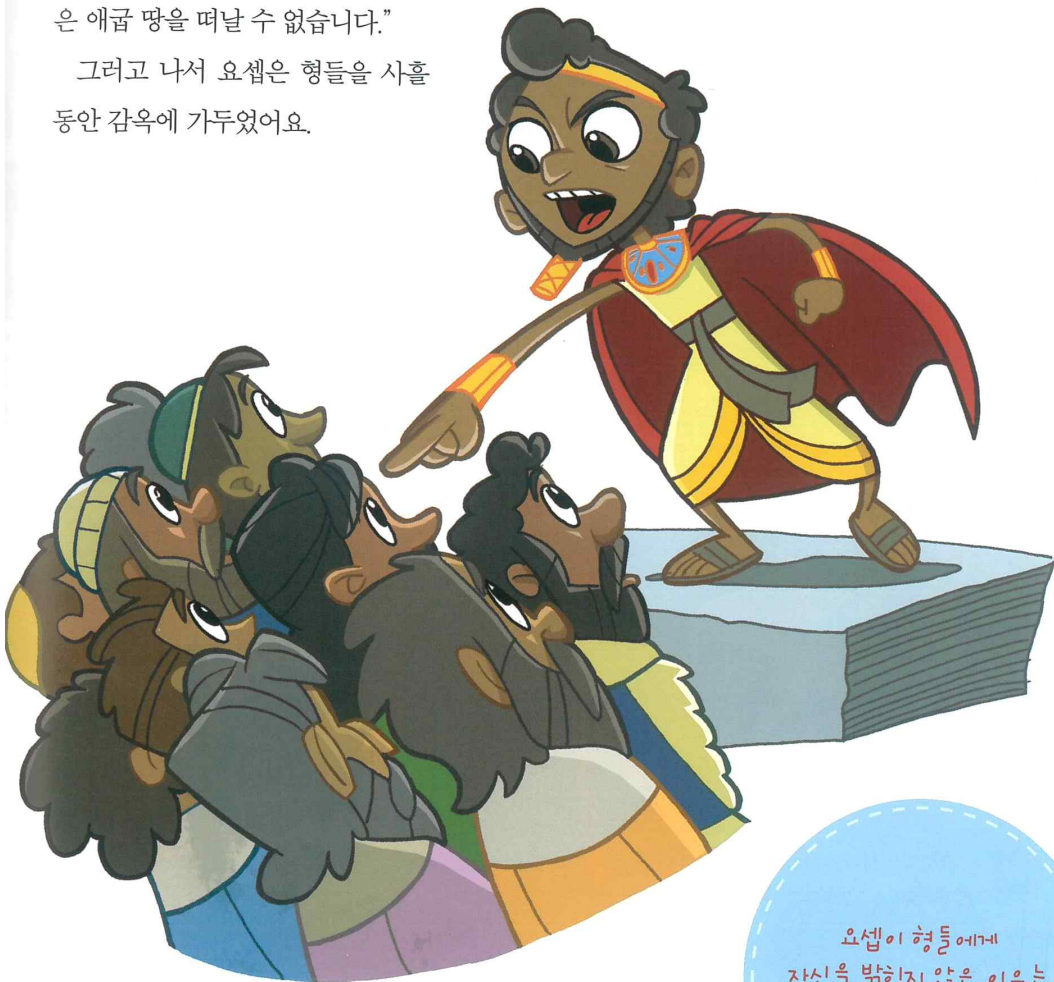
* 흉년 : 농작물이 다른 해에 비해 잘 되지 않아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해를 말해요.

* 참자 : 한 나라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다른 나라나 단체에 알려 주는 사람이에요. '스파이'나 '간첩'이라고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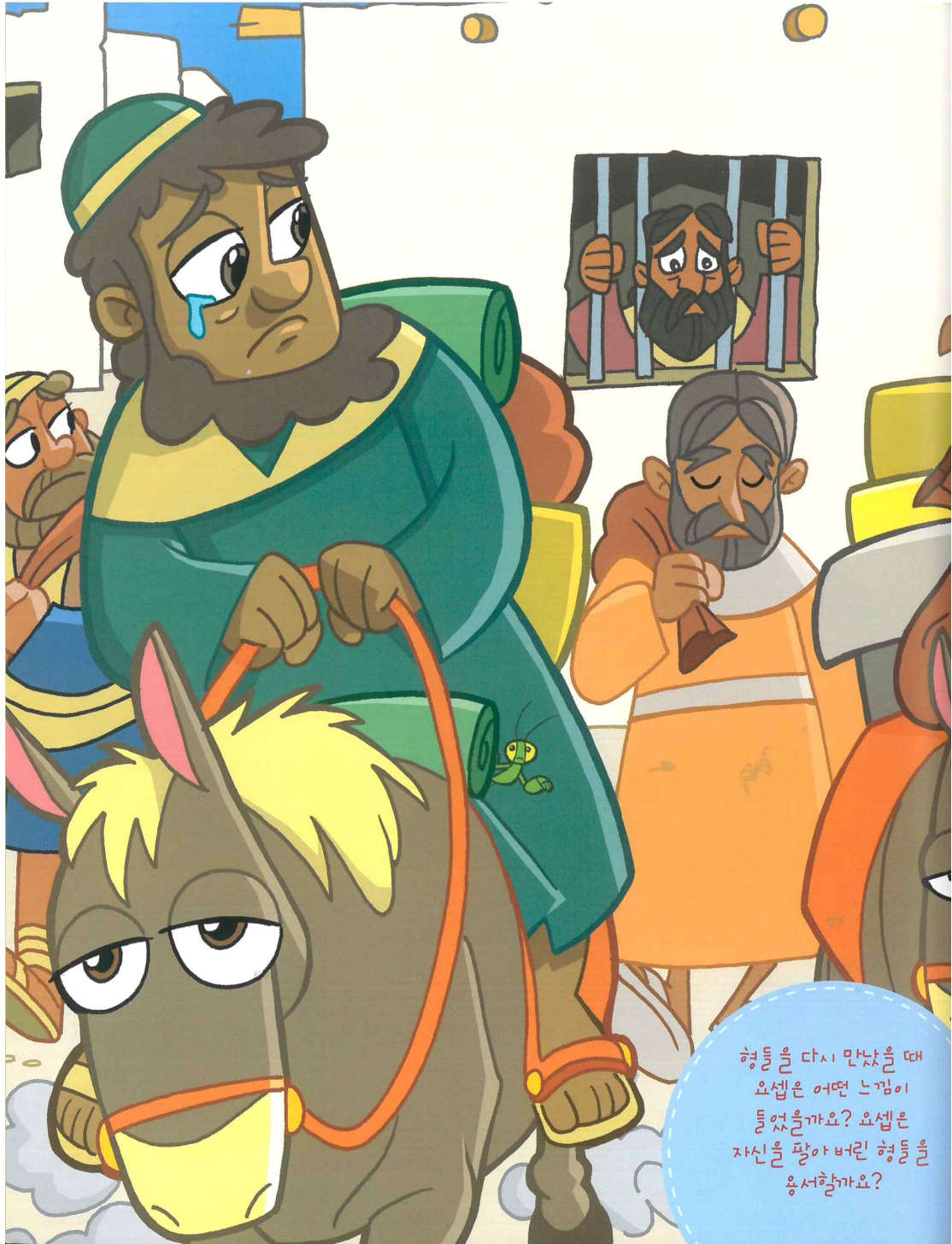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난 열두 형제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고 한 명은 잃어버렸어요.”

“그 말을 증명해 보세요. 막내 동생을 이곳에 불러와요. 동생이 이곳에 올 때까지 당신들은 애굽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음식을 가지고 굶주린 가족들에게 돌아가세요. 나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오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요셉은 시므온을 선택해 감옥에 남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가득 채우고, 형들이 식량을 사려고 내놓은 돈도 자루에 다시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을 음식도 주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모든 일이 요셉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어요.

형들은 음식을 당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어요.

그날 밤, 형들 중 한 명이 자루를 열어 봤어요. 그는 깜짝 놀라 다른 형제들을 불렀어요.

“돈이 자루에 그대로 남아 있어!”

요셉의 형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형들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곡식 자루를 열 때마다 자루에는 돈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어.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베냐민까지 보낼 수는 없단다. 그 애는 내게 남은 전부야.”



흥년이 계속되어 애굽에서 사 온 곡식도 모두 떨어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말했어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더 사 오렴.”

그러자 유다가 말했어요.

“베냐민을 보내실 준비가 되셨다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보내실 수 없다면 저희들도 가지 않겠어요.”

결국 야곱은 뜻을 꺾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거라. 자루에 선물을 챙겨 가고, 지난번 자루에 들어 있었던 돈의 두 배로 갚거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단다.”

형들은 요셉에게 바칠 선물과 지난번에 돌려받은 것보다 두 배 많은 돈을 챙겼어요. 베냐민도 데리고 떠났지요.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신하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모시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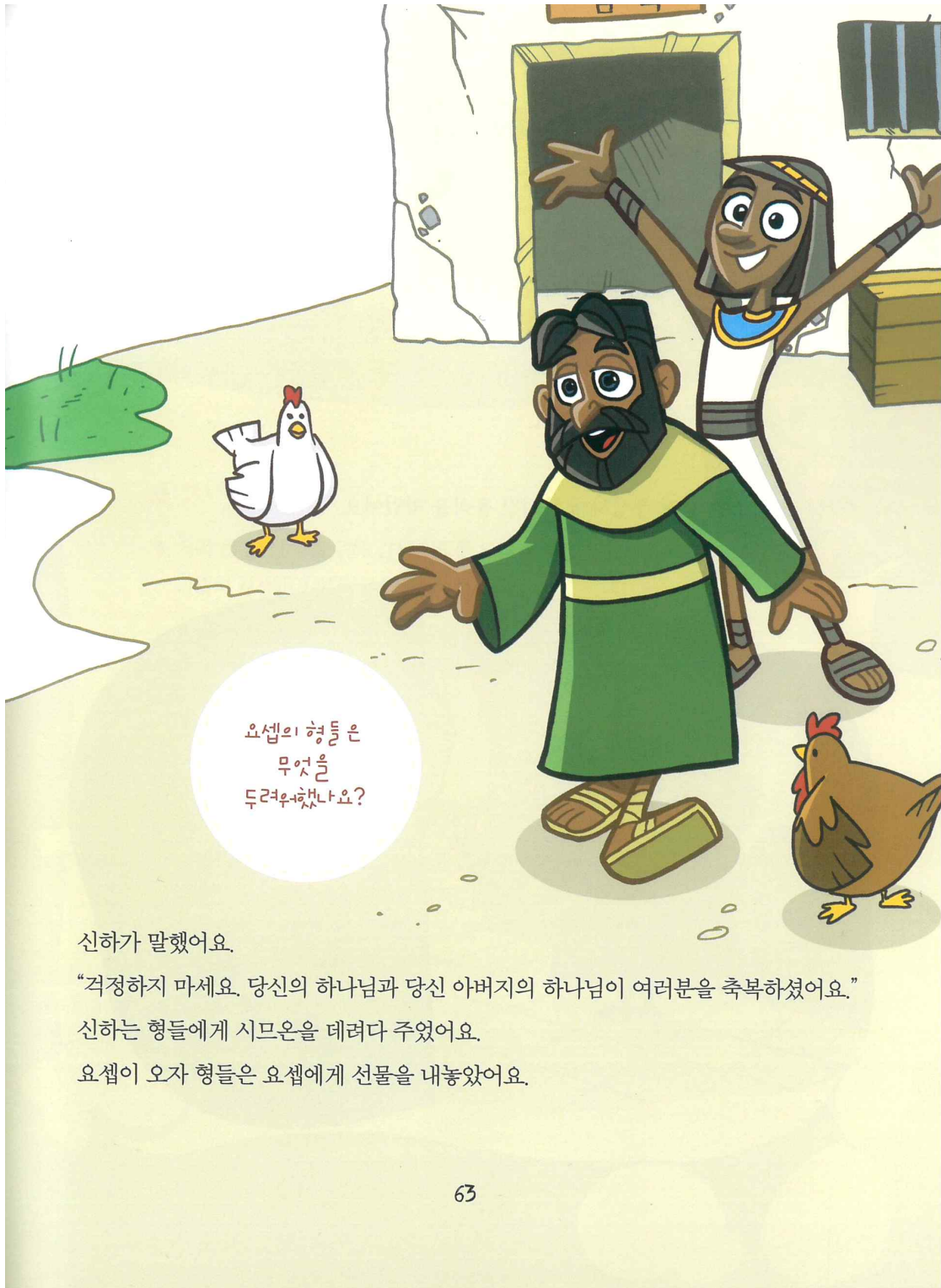
하지만 형들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어찌지?’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신하에게 가서 말했어요.

“우리는 전에 곡식을 사러 이곳에 온 적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 보니 돈이 그대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가져왔어요. 누가 우리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요셉은 형들을 반기며 말했어요.

“저번에 말한 당신들의 늙은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아직 살아 계신가요?”

형들이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강히 계십니다. 그렇고말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베나민을 불러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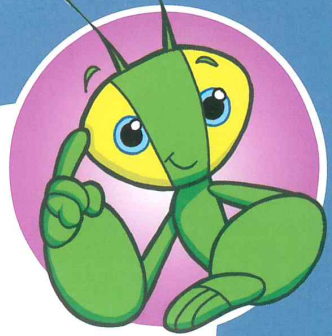
동생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한 요셉은 서둘러 다른 방으로 들어가 울음을 터트리며 말했어요. 눈물을 닦고 온 요셉이 말했어요.

“음식을 먹읍시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보세요!



🍎 기도해요

- +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려 보세요.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일이 있나요?

💖 실천해요

- + 가족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 + 가족의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특별하게 만드나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가족이 있나요? 혹은 요리를 잘 하거나 그림 그리기, 사랑하기, 간지럼 타기, 도와주기를 잘 하는 가족이 있나요? 장난을 좋아하는 가족도 있나요?

3.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